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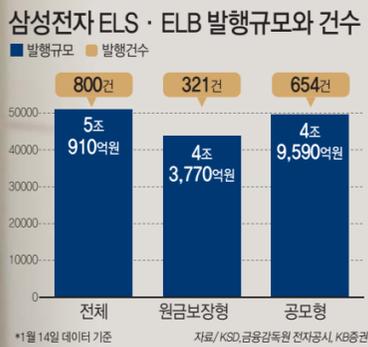
극적반등, 녹인구간 탈출... 5조 파생상품 '안도의 한숨'

(손실구간)

(ELS·ELB)



블랙록 "저평가" 주식 5.03% 보유
ELS·ELB의 86% '원금보장형'
NH·KB證, 삼전 목표주가 상향



삼성전자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5조원 규모)의 손실구간(녹인) 진입 공포가 사그라 들었다. 반도체 시장의 반등과 외국계 큰 손이 삼성전자를 대거 사들이고 있어서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은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특별관계자 15인과 함께 삼성전자 주식 5.03%(3억39만1061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증권가에서는 블랙록이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가치가 저평가됐다고 보고 대량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 특히 반도체 시장에 대한 믿음이 강하다는 얘기다.

시장 조사기관인 가트너는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전세계 반도체 시장 매출이 총 4890억달러로, 지난해(4770억달러)보다 2.6%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의견의

차이는 있지만 인공지능(AI), 5세대 이동통신(5G)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수요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파생상품시장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1월까지만 해도 한때 3만6850원(1월 4일)까지 추락하자 삼성전자 기초자산 추가연계증권(ELS) 투자자는 손실 위험을 걱정해야 할 처지였다. 하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리더십과 반도체 시장에 대한 전망이 장밋빛으로 바뀌면서 녹인배리어(원금손실구간) 걱정을 덜게 된 것이다.

12일 한국예탁결제원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KB증권에 따르면 삼성전자를 기초자산으로 활용한 ELS·ELB는 1월 중순을 기준으로 800건, 5조908억원

(잔존하고 있는 ELS·ELB 기준)이다.

중목형 ELS는 코스피 등 시장지수를 기초자산으로 담은 지수형 ELS와 달리 개별 기업 2~3개를 묶어 기초자산으로 한다. 변동성은 크지만 수익률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주가가 떨어지면 '녹인(Knock-In)' 공포도 커질 수밖에 없다. 최근 삼성전자 기초자산 ELS 투자자들이 '녹인' 공포에 떨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녹인' 공포가 과하다고 지적한다.

삼성전자 기초자산의 ELS 가운데 원금보장형이 321건, 4조3765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전체의 86% 규모다. 삼성전자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ELB의 86%는 원금손실과는 무관한 ELS라는 의미

이다. 동시에 공모형 ELS·ELB 비중이 97.4%에 달했다. 보통 녹인을 이야기할 때 '사모 ELS가 많아서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주가가 상승하면서 발행 가격대와 '녹인' 가격과의 차이도 괴리가 커졌다. 삼성전자 기초자산 ELS 대부분이 3만6000원~3만9000원 부근에서 발행됐다.

KB증권 이종호 연구원은 '원금보장형과 '녹인' 상품, ELS를 뺀 대부분의 녹인은 2만2000원~2만4000원에 존재해 그 규모도 2781억원 규모이다'면서 "녹인의 시장도 3만7000원대에서 나타나기 시작해 현재 상황에서 삼성전자 기초 파생상품의 손실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행사가 가격이 만기에 다가갈수록 단계적으로 하락하는 '스텝다운형' ELS는 녹인배리어가 최초 기준가의 60%인 상품의 경우에는 추가 주가 하락을 걱정해야 한다.

주가가 오르면 분위기가 달라진 이유는 뭘까. 이재용 부회장 등 경영진들의 자신감이 첫 번째 이유다.

지난달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재계 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은 "요즘 반도체 경기가 안 좋는데 어떤가요"라며 '반도체 수확 사이클(초호황)'이 주춤하는 양

상에 대해 우려하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또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한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 현황 등을 설명하는 자리에서도 "비메모리 분야인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시키겠다"며 "위기는 항상 있었지만, 이유를 밖에서 찾기보다는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반드시 헤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NH투자증권은 최근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5만원에서 5만5000원으로 올렸다. 도현우 연구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IT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2020년 이후 실적 추정치를 올리면서 목표주가가 상향 조정됐다"며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도 1분기를 바닥으로 2분기부터 점차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2분기 이후 반도체 산업은 점진적 회복 국면이 기대된다"며 "특히 삼성전자 반도체 전략은 점유율 확대보다는 수익성에 초점을 둘 것으로 보여 이번 하락 사이클은 단기에 그칠 것"이라며 목표주가를 4만5000원에서 5만2000원으로 올렸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대우조선 인수후보자에 현대중공업

산은, 삼성중 인수제안 불참 통보

대우조선해양 인수후보자로 현대중공업이 확정됐다.

산업은행은 12일 "삼성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제안에 불참의사를 통보해 왔다"며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이 인수후보자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은행은 현대중공업과 현물출자를 통해 새로운 조선통합법인을 만들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각각 별도법인으로 편입되는 방식의 조건부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당시 산업은행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쪽과 대우조선 매각 협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에 따라 삼성중공업에도 인수제안서를 보냈지만 삼성중공업이 불참의사를 밝히면서 현대중공업이 인수후보자로 최종 확정된 것.

/나유리 기자 yul115@

합의안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 주식 5973만8211주(지분율 55.7%)를 신설 지주사에 모두 출자한 뒤 신설 지주사 신주 1조2500억원의 전환상환우선주(RCPS)와 8500억원 규모의 보통주를 되받아 18% 지분율로 2대 주주가 된다. 지주사의 최대주주는 26%의 지분을 가진 현대중공업이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현대중공업과 예정된 본계약 체결을 위해 이사회 등 필요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3월 초 이사회 승인시 현대중공업과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확인 실사 등 제반 절차 진행한 후 조선통합법인 주주배정 유상증자 및 당행 보유 대우조선주식 현물출자, 조선통합법인의 대우조선 앞 유상증자 등을 통해 대우조선 민영화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땅값 광주 10.71%, 부산 10.26% 상승

>> 1면 '전국 땅값 9.42%...'서 계속

앞서 예정안(9.49%)보다는 0.07%포인트 내렸으나, 2008년(9.63%) 이후 11년만의 최대 상승폭이다.

서울은 13.87% 올라 전국에서 상승폭이 가장 컸다. 작년 상승률(6.89%)의 두 배가 넘는다. 그중에서도 강남구가 23.13%로 가장 많이 올랐고 중구(21.93%), 영등포구(19.86%) 등이 20% 안팎 상승했다.

서울 다음으로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 등이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높았다.

반면 충남(3.79%), 인천(4.37%), 전북(4.45%), 대전(4.52%), 충북(4.75%) 등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9.42%)보다 낮게 상승했다.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전년(62.6%) 대비 2.2%포인트 상승한 64.8%로 집계됐다. 하지만 고가 토지의 경우 이보다 높은 70%선에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공시지가는 중심상업지구나 대형 상업·업무용 건물 등 고가 토지(전체의 0.4%)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게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가 2018년 4600만원에서 2019년 6090만원으로 32.4% 올랐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한 세부담 전가 및 건보료, 기초연금 등 관련 제도의 영향에 대해선 TF(태스크포스)를 마련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다만 전체의 99.6%에 달하는 일반토지는 공시지가 변동률이 높지 않아 이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JY의 글로벌 행보... 이번엔 UAE서 5G 공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실세' 아부다비 왕세자 등과 만나
삼성-UAE 협력방안 모색한 듯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글로벌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에는 중동을 방문해 현지 통신 시장 공략을 시작했다.

12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11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UAE 공군 부총사령관을 겸임하고 있는 셰이크 모하메드 빈 자예드 알 나얀 아부다비 왕세자 등 현지 유력 인사들과 만났다. 모하메드 왕세자가 개인 SNS에 사진을 올리면서 이같은 사실이 공개됐다.

이 부회장과 왕세제는 삼성전자와 UAE 업체들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5G 통신과 IT 사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는 전언이다. 업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UAE에 차세대 통신망 구축시 삼성전자를 장비를 써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설 연휴 기간 중



아부다비 왕세자가 SNS에 올린 사진. 이재용 부회장(왼쪽)과 아부다비 왕세자. /아부다비 왕세자 SNS 캡처

국 시안 공장을 방문한 바 있다. 2라인 증설 현황을 둘러보고 현지 근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다. 이후 유럽을 둘러 두바이로 다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전자는 올 들어 5G 사업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4대 미래성장사업으로 5G를 택하고 220억달러 투자 계획을 밝힌 데 이어, 인도 등을 방문해 시장 확대를 꾀하는 모습이다.

이 부회장이 만난 아부다비 왕세자는 UAE에서 실제로 잘 알려져 있다. 지난

해 3월 UAE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원전사업등을 논의한 적도 있다.

한편 현지언론은 이 부회장이 2019년 세계 정부정상회의에 참석했다고 전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정상회의는 각국 정부 관계자와 유력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매년 두바이에서 열리는 행사다. 올해에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국제통화기금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 등이 함께했다.

/김재용 기자 juk@

"다중소송제·집중투표제 등 밀어붙이기"

>> 1면 '興 '구밀복검' 정책...'서 계속

'감사위원 분리선출'의 경우 감사위원을 뽑을 때 대주주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법안이다. 역시 대주주 경영에 한계를 두는 제도다.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엘리트 사태를 보고도 (여당이) 이런 방안을 내놓는 걸 보면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게 아니라 허무는 꼴"이라며 "숨통이 조인다"고 비꼬았다.

학계도 제도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평가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여당이 도입하려는 제도는 경영자를 견제할 수도, 반대로 기업 공격으로 돈을 털어낼 수도 있다"며 "양날의 검"이라고 강조했다. 위 교수는 "기업 배당금을 높이고, 회사를 분리하고 쪼개기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악용할 수 있다"며 "기업을 얼마든지 말아먹을 수 있는 하나의 무기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당은 비상장 벤처기업에는 '차등의결권'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차등의결권이란 경영진·최대주주가 보유한 지분율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갖도록 하는 제도다. 대기업이 경영권 방어 위해 정부·정치권에 요구하는 법안 중 하나다.

조정석 정책위의장은 "차등의결권은 혁신기술 벤처기업의 성장을 돕는 사다리가 될 것"이라면서도 "대기업에까지 확산하는 것에는 걱정과 우려가 있어 기본적으로 비상장 벤처기업으로 제한할 생각"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석대성 기자 bigstar@